

어린이 책꽂이



▲우리 거레는 수학의 달인-경주로 떠나는 수학여행=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에 담긴 수학적 의미들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저자는 우리 거레의 수학 유산을 알아보고 수학의 친해지는 여행길로 신라 천년의 수도, 경주 답사 여행을 제안한다. 옛 수학 이야기를 재미있게 풀어쓴 '우리 수학 더 알아보기' 코너도 있다. <창비·1만원>



▲소리가 들리는 동시집=“좋은 동시” 대표 이상고 시인의 작품 가운데 흥내말이 돋보이는 동시 60여 편을 모았다. 소리와 모양을 흉내 낸 우리 말인 우리 고유의 의성어와 의태어를 예쁜 그림과 함께 동시로 담았다. 동시 특유의 순수함과 재미 발랄함이 그대로 살아있다. <토도북·1만3천원>



▲새로운 세상을 꿈꾼 조선의 실학자들=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 ‘지봉유설’을 펴낸 이수광, 백성이 주인 되는 나라를 꿈꾼 사상가이자 실천가 정약용 등 쓰러져가는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을 이루기 위해 온몸을 던진 조선 후기 실학자 6명의 발자취를 추적했다. <한겨레신문·1천1천원>



▲내 멋대로 공주 학교에 가다=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어린이 문학상인 케이트 그린어웨이 상을 두 차례나 수상한 배빗 콜의 그림책. 내 멋대로 공주가 이번엔 학교에 가야한다. 그것도 유아한 공주 만드는 학교에. 학교에 간 내 멋대로 공주는 과연 유아한 공주가 될 수 있을까. <살림어린이·9천500원>



▲내 친구 조이=제17회 눈높이아동문학상 당선작으로 표지율씨의 작품이다. 캐나다에서 온 조이, 영어도 잘하고 멋진 것 같은 친구가 지독한 말쑥꾸러기에 지독한 발냄새, 거기다 영어 점수는 30점. 다문화가족 조이의 좌충우돌 친구 만들기 이야기로 우리 모두가 조금씩 다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한다. <대교출판·9천500원>



▲꽃밭 도둑=‘탄트라’를 쓴 작가 백금남씨의 첫 동화. 어쩔 수 없이 부모와 헤어져 한 동지에 모여 때로는 다투고, 때로는 끌어안으며 사는 산골 고아원의 씩씩한 다섯 아이 이야기를 담고 있다. 죽은 엄마의 밤상에 ‘꽃밭’을 울리기 위해 모험을 하는 이야기 등 아이들의 순박한 마음과 사랑이 가득 담겼다. <맹앤앤·9천원>



▲나도 힘들어!=‘이건 내 얘기 시리즈’의 첫 번째 책. 학교와 학원도 가야하고, 숙제도 해야하며 심부름, 양치질 등을 해야 하는 어린이가 겪는 고달픔을 타티아나의 이야기를 통해 들려준다. 2권 ‘내가 왜 이럴까요’, 3권 ‘이기는 게 전부 아니야’도 곧 나올 예정이다. <예림·8천500원>

▲신화, 과학을 들어올리다=그리스 신화 속에 담겨있는 과학의 원리를 속속 뺏아 알려준다. 아킬레스와 헤라클레스의 격투기, 제우스의 전쟁을 통해 홍수, 화산, 예오스와 티토노스의 신화를 통해 변화하는 생물을, 가슴 아픈 예코와 나르키소스 신화를 통해 소리와 거울에 대한 원리를 설명해준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상처뿐인 삶, 그래도 살아야 한다

바람이 분다, 가라

한강 지음



인공호흡기에 의지해 목숨을 이어가던 여인이 갑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숨을 쉰다. 죽음의 문턱에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호흡이다. 하지만 그 숨이 오히려 환자의 목숨을 위협할 수도 있다. 인공호흡기와 환자의 호흡이 엇박자를 내며 부딪히는 ‘브레스 파이팅’(Breath Fighting) 증상 때문이다. 살기 위한 노력이 오히려 환자의 목숨을 위협하는 꼴이다.

소설가 한승원의 딸인 한강(40)의 네 번째 장편소설 ‘바람이 분다, 가라’는 작가가 의사로부터 들은 이 역설적 상황을 모티브로했다.

확장시절부터 인주와 특별한 우정을 쌓아온 화자 이정희는 인주의 죽음을 자살로 단정한 한 미술잡지의 1주기 특집 기사를 보고 글을 쓴 미술평론가 강석원을 찾아간다.

인주를 흠모했던 강석원은 전 재산을 들여 인주의 작업실과 유품을 사들인 후 인주를 신화화하는 작업에 매진 중이었다.

그러나 누구보다 삶을 사랑했던 인주가 자살했을 리가 없다고 믿는 정희는 강석원이 쓰는 서인주 평전을 무너뜨리기 위해 강석원의 글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담은 또 다른 책을 쓰기로 한다.

소설은 정희의 치열한 내면을 고스란히 보여 주는 격렬한 문체로, 진실에 접근하는 과정을 긴장감 넘치게 그리고 있다.

인주와의 기억을 하나하나 불러내면서 동시에 인주가 남긴 기록을 뒤지고 인주의 주변 인물들을 만나면서 정희는 자신이 오해했던 인주의 모습을 발견해 나가기 된다.

살기 위한 들숨과 날숨의 싸움에서 인주는 지고 말았고, 정희는 또 다른 싸움에 직면한다. 피투성이의 정희가 ‘살고 싶다, 살고 싶다’라는 독백과 함께 몸부림치며 바닥을 기어가는 장면은 강렬한 여운을 남긴다.

작가는 이와 관련 “스스로의 내면과 부딪치고 삶과도 부딪치면서 계속 앞으로 나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표현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프랑스 시인 폴 발레리의 대표작 ‘해변의 묘

지’에 나오는 “바람이 분다 살아야겠다”는 구절을 연상시키는 소설의 제목은 그 자체로 생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만큼의 숨기를 품은 바람이, 이만큼의 세기로 불면 말아야…… 혈관 속으로 바람이 밀고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져. 모든 것이 커다란 전체로 느껴져. 언젠고 내 다리를…… 단박에 목숨까지 캐뎠을 수 있는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게, 무섭도록 분명하게 느껴져.”(368~369쪽)

또한 작가가 등단 이후 16년여 동안 자신의 작품에서 구현하고 완성해낸 정제된 언어와 문체 미학은 이번 소설에서도 변함없이 발휘된다.

“모든 언어가 단 하나의 단어로 압축된다면, 그런 단어가 존재한다면,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그걸 발음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122쪽)라는 대목 역시 그런 작가의 오랜 목표와 닿아 있다.

소설 곳곳에 등장하는 이탤릭체도 등장인물의 심연, 불안과 두려움, 외부의 폭압에 대한 거센 항거, 삶에 대한 강렬한 의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작가는 “채식주의자”를 쓸 때만 해도 삶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이 세계의 폭력성과 소통의 어려움을 그저 응시하자는 마음이었던 이 소설에서는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갔다



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왜 살아야 하는가를 모색하는 과정이 이 한 권의 책이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문학과지성사·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친환경에 힘쓰는 사회적 기업들

한국의 보노보들 ...

안치용 의 지음



물건을 재생산하고 순환시켜 생태를 보전하고 기증받은 각종 물품을 약간 손보거나 나 다른 물건으로 만들어 파는 ‘아름다운 가게’, 고기 대신 콩비지를 넣고 지역에서 생산된 재료로 만든 ‘친환경 버거’로 유명한 패스트푸드 체인 ‘올리’ 등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지속가능사회를 위한 경제연구소’의 안치용 소장 등이 쓴 ‘한국의 보노보들-자본주의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에는 국내의 대표적 사회적 기업 36곳의 이야기를 다뤘다.

외국의 사회적 기업을 다뤄 관심을 모은 ‘보노보 혁명’의 한국 판이라 할 수 있겠다.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예술인 60여 명을 고용해 문화 취약계층 어린이와 주민에게 예술을 가르치도록 하고 정기적으로 급여를 주는 ‘자바르메’, 폐전자제품이 쏟아지는 도시를 회귀 금속이 나는 탄광으로 삼고 처리에 손이 많이 간다는 단점을 ‘고용을 많이 한다’는 장점으로 역이용한 ‘에코그린’ 등이 소개됐다.

저자들은 자선단체가 아니라 하나의 기업으로서 취약 계층에 일자리를 주는 동시에 환경에 폐를 끼치지 않고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수익을 내려 애쓰는 사람들의 모습을 꼼꼼하게 취재해 담았다. <부키·1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근대과학의 토대는 문화혁명이다

16세기 문화혁명

아마모토 지음



역사적으로 서양의 14~15세기는 르네상스 시대로, 17세기는 과학혁명의 시대로 조명된다. 이에 반해 16세기는 별다른 이름도 없고, 그만큼 주목받지도 못했던 시대다.

일본의 재야 물리학자 아마모토 요시타카는 ‘16세기 문화혁명’에서 16세기가 17세기 과학혁명을 이끌어낸 ‘지각변동’의 시기였다는 주장을 펼친다. 저자 아마모토는 차세대 노벨상 수상자로 주목받았던 인물이다.

케플러, 갈릴레오, 뉴턴, 윌리엄 하비를 필두로 한 17세기 신과학의 천재들이 남긴 혁혁한 업적은 16세기 문화혁명이 밀어올린 기반 위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골자. 그리고 그 근대과학을 추동한 인물이 바로 장인과 기술자라는 것이다.

또 저자는 ‘무지렁이’라 천대받던 장인, 기술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폐쇄적인 스콜라 문화를 대신하여 새로운 지식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그 자체로 혁명이라 할 만하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수많은 도판과 사례와 자료를 제시하며, 지식의 공개와 누적적 진보라는 근대적 사상이 어떻게 싹났는지, 한계가 무엇이었는지를 한 장의 세밀화를 들여다보듯 생생하게 조명했다.

<동아시아·3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고비사막서 아들과 나를 만나

낙타

정도상 지음



‘십오방 이야기’로 데뷔 후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세심하게 그려온 소설가 정도상이 오랜만에 장편소설 ‘낙타’를 펴냈다.

지난해 인터넷 문학동네 독자 커뮤니티에 연재됐던 소설을 손질한 작품이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 아들을 가슴에 담고 떠난 고비사막으로의 여행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되는 주인공이 답답하게 풀어가는 내용이 주된 줄거리다.

짧은 유서를 남긴 채 세상을 떠나버린 아들 ‘규’로 인해 힘들어 하던 소설가 ‘나’는 몽골 고비사막으로 향한다.

초원 한복판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의 앞에 ‘꿈처럼’ 아니, ‘영혼인듯’ 나타난 이는 바로 아들 규. ‘나’는 자신의 손을 잡아 준 ‘규’와 함께 인생의 길동무처럼 사막을 여행하며 자신을, 세상을 들여다 보게 된다.

또 안산의 밤비공장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잃어버리고 돌아온 조르호, 한국으로 일러려 갔다 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엄마를 그리워 하는 소녀 체체 등 길에서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보여 세상에 따뜻한 눈길을 보낸다.

<문학동네·1만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침·뜸·경락 신경통·관절염·골관절염·근육통·편두통·노년성 질환

경주 14기 3월 19일(금) 14:00-17:00

강주영(침)·김영희(뜸)·박영희(경락)·김영희(침)·박영희(뜸)·박영희(경락)

문의: 1544-5359

신민국민은행

신민은행

1588-3533

공장매매

- 위치: 함평 학교 농공단지내
- 대지: 6,345㎡(1,920평)
- 건물: 1,685㎡(510평)
- 전기: 계약전력 200kW
- 호이스트: 3+3TON, 5TON(협의)

현재 가동중

연락처: 011-612-2823

이메일: gsd71@hanmail.net

토지매매

위치: 나주시 노인면 오성리

- 대지: 4,000평
- 건물: 650평
- 전: 9,500평
- 합계: 13,500평
- 매가: 40억 5000만원

강주 - 무안 고속도로 (나주시 입구)

동산대 - 나주시-국가산업단지 (4차산업도로확장 예정)

김집이공인중개사

11-620-3910 02-381-0000 (상주시구 5.16공평사거리)